

# DLS 소송 본격화... 은행-투자자간 격돌

한누리 금감원 결과발표 후 소송  
키코 공대위, 오늘 종합토론회  
금감원 접수된 분쟁조정 150건

19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시중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빠르게 이번 주나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은행을 상대로 한 공동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이에 앞서 40여명 피해자에 대한 금감원 피해 분쟁조정 대행 절차에도 착수했다.

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DLS·DLF 사태에 대해 은행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17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대규모 손실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철벽방어에 나선 은행 측과 투자자간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소비자원은 우선 투자자 4~5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은행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명을 1차 소송 제기자 명단에 올리고, 서류 등 소송 근거를 더 취합한 후 다룬 투자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첫 명단에 올라가는 투자자들은 상식적으로 전혀 고위험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돼 불안전판매가 명확하다"며 "관련 서류나 해피콜 녹취가 없더라도 소송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도 "연금수입으로 사는 60대 투자자가 향후 수입원이 '일정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체크돼 있거나 거래 경험이 예·적금뿐인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다고 적혀있는 등 서류가 조작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안정형인 투자자들이 공격투자형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부터 공동소송 계획을 밝힌 한누리는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시중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대대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어 배상비용을 보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

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DLS 소송에서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데 첫 번째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부터 판매자들이 사실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첫 번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상품과 DLS 상품 구조가 비슷하고 키코는 기업을 상대로, DLS는 개인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것만 차이가 있어 사태 해결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며 "10년간 키코 사태를 해결하며 쌓아온 시행착오와 보완책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150건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법령이나 내규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해 조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KB증권

#### 상장지수펀드 감사 이벤트

KB증권은 16일부터 '365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국내상장 ETF 일간 거래대금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고객은 비대면 및 은행에서 개설한 365지점 계좌로 거래하는 고객이다.

대상 계좌에서 국내상장 ETF를 일간 30억, 15억, 5억 이상 거래하면 각각 20만원, 10만원, 5만원의 현금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구간별로 상위 10명 총 30명에게 매일 포상한다. 순위는 거래금액 상위 기준으로, 포상인원 초과시 상금이 미지급 될 수 있다.

이벤트 참가 신청 후 해당 기간 1000만원 이상 ETF를 거래하는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하여 신세계상품권 1만원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NH투자증권

#### 20일부터 '세기의 동행展'

NH투자증권은 오는 20일부터 3일간 서울 평창동 서울옥션하우스 전시관에서 창립 50주년 특별전 '문화, 투자가 되다-세기의 동행展'을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투자, 문화가 되다'란 브랜드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들과 함께 '투자가 문화가 되는 경험'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르크 샤갈,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부터 하태임, 강세경, 이사라 등 한국 컨템포러리 아트 대표주자들과 카우스, 스티키 몬스터 랩으로 대표되는 뉴트렌드 아트에 이르기까지 세기에 걸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된다. /채윤정 기자 echo@

### 하이투자증권

#### 오늘 하반기 증권투자설명회

하이투자증권 구서지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부산 구서지점 객장에서 '2019 하반기 증권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권명재 하이투자증권 과장이 강사로 나서 '8월 추천주 상승률 100%의 비법, 멀리 가기 위한 투자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투자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어질 시나리오들을 점검한다. 지난 8월 100%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추천주 선별 비법을 전하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들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분쟁 상황 속에서도 중국투자에 집중했던 배경과 함께, 앞으로도 중국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손엄지 기자

# '애국펀드' 640억 돌파·수익률 3.13%... '대통령 효과'

NH아문디자산운용 지난달 출시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등 가입

NH아문디자산운용이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가 '재인 대통령 효과'로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16일 현재 64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펀드 출시 후 1개월 운용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 3.13%로 순조로운 출발로 평가된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16일 필승코리아 펀드 1개월 운용경과 발표를 통해 "출시 초기 범농협금융에서 지원한 300억원을 제외하고 340억원이 추가로 모집돼 침체된 공모 주식형펀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하면서 '애국펀드'로 알려지기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 시·도지사, 스포츠스타 등 주요 인사들

이 가입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펀드는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업종 중 국산화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들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다.

펀드 판매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은행 및 증권사 등 25개 판매사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펀드 가입 이후 일 평균 20억~30억원씩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또 전체 가입 계좌수가 2만2000계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의 1개월 전 투자내역을 분석해보면 현재 57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 부품·소재·장비업체에는 전체 종목수의 절반 가량인 27개 업체에 투자해 투자 비중으로는 약 30%에



NH아문디자산운용이 출시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640억원을 돌파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해당한다. 이는 부품·소재·장비업체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총액 비중이 5%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투자 비중이다. 나머지 30개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종목들이다. 업종별로는 IT(46%), 자동차 부품(16%), 소재(10%), 소프트웨어 서비스(9%) 등에 투자하고 있다.

문영식 NH아문디 마케팅 부분장은

"필승코리아 펀드는 위험등급이 2등급인 주식형펀드로 장기투자자 적합성 같은 분산투자가 필수인 상품"이라며 "주식형 펀드에 익숙지 않은 개인투자자는 10% 정도의 기대수익을 목표로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하되, 기대수익에 도달하면 이익실현 후 재투자를 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LH, 복합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LH는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지식산업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산단재생리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단재생리츠'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가 LH 용지를 매입해 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설·임대(10년) 운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LH가 서대구 산단에 도입한 후 제2호 산단재생리츠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LH·기금 등 공공의 재원조달 및 미분양 산업시설에 대한 LH의 매입확약이 수반됨에 따라 사업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모델로 꼽힌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사업자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활성화구역 내 건립될 복합지식산업센터의 설계·시공·사업시설 임대운영 및 매입확약을 담당하게 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 신한금융투자, PASS 주계좌 개설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이동통신사 개인인증 어플리케이션인 'PASS(SKT)'에서 주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축하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SK텔레콤 고객이 PASS앱을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CMA계좌를 개설하면 축하금 2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개설된 PASS 주계좌로 SK텔레콤 리워드 및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점 구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소수점 구매는 미국주식 86개 종목을 0.01주 단위(최소 5달러 이상)로 매수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현재 1800달러 수준인 아마존도 2만원 정도로 0.01주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